

〈電力事業篇〉

# 發電設備규모 1,400萬kW記錄

## 良質電氣供給으로 國民生活 安定에 總力

文 熙 晟

韓國電力公社 副社長

숨가쁘게 달려왔던 甲子年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의 共同目標 達成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뛰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對內外的으로 어려운 與件 아래서도 우리 모든 韓電家族은 「믿음과 사랑받는 韓電建設」을 위해 「國民奉仕와 能率提高」에 진력하는 가운데 값진 보람을 함께 추구해 왔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밖으로는 國民에게 安定되고 質좋은 電氣를 풍부히 供給하여 國民生活에 便宜를 도모하고,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겠다는 決意가 더한층 높았던 한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안으로는 政府投資機關의 經營自律化에 따라 責任經營이라는 一大變革을 가져온 첫 해로서 그 基盤을 조성하고 電力事業의 公益性和 企業性的 조화를 개편, 責任意識과 創意性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며 생동감 넘치는 韓電像 구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바 있는 政府經營評價에서 25개 政府投資機關中 유일하게 秀를 받아 韓電家族 모두에게 큰 自負心을 안겨준 뜻 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韓電은 産業規模面에서 10兆원에 이르고 年間 總豫算이 5兆원으로 政府豫算의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살림규모를 갖춘 國內最大의 企業으로서 韓國經濟發展의 牽引車 역할을 하며 기반을 더욱

굳혔습니다.

電源開發 面에서는 그동안 脫油政策을 지속적으로 推進, 지난 6月 國內最大의 有煙炭發電所인 三千浦火力 1, 2 호기 (56만kW×2)를 비롯 舒川火力 1, 2 호기 (20만kW×2) 保寧火力 (50만kW×2) 등 모두 6기의 石炭發電所를 차례로 竣工함으로써 그 야말로 電源擴充의 려쉬를 이루었으며, 發電設備 規模도 1천400만kW를 상회하는 刮目할만한 記錄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油類發電量 比重이 약 66%였으나 금년에는 45%로 대폭 줄어들어 油類消費量도 25% 가량이 減少되는 效果를 올렸습니다.

한편, 良質의 電力供給을 위하여 送電線路의 증설을 비롯하여 GIS型 變電所의 확대, 給電의 自動化, SCADA 시스템, 架空送電線의 地中化, 系統의 昇壓, 그리고 活線作業의 확대등 送變電設備에도 대폭 投資를 확충하였습니다.

그 결과 系統電壓과 配電電壓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周波數 安定度 역시 98.4%로 향상되었고 事故停電時間이 戶當 年 124分에서 115分으로 短縮되는 등 좋은 成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여기에 滿足하지 않고 努力을 倍加하여 改善效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販賣分野는 날로 향상되는 國民生活 水準과 다소 회부의 기미를 보였던 景氣추세에 힘 입어 電

力需要도 전년보다 약 10%증가, 470억kWh에 이르는 電力消費量을 나타냈으며, 지난 여름철의 最大電力은 史上最高인 8백8십1만1천kW를 記錄, 작년보다 121만kW가 증가되는 놀라운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熱效率과 送配電損失率도 향상되어 先進國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從業員의 生産性向上과 原子力 및 石炭火力의 利用率 향상등으로 막대한 利子부담에도 불구하고 kWh當 1원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技術研究院에 R & D資金 100억원을 배정, 研究課題 76件을 선정, 外部研究機關의 긴밀한 협조아래 研究活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해마다 販賣收入의 0.3%이상을 여기에 投資하면서 原子力分野를 포함한 尖端技術 개발에 더욱 精進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國際技術協力 증진에도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日本電源開發株式會社, 이탈리아 ENEL電力會社와 새로운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우리의 主管으로 亞細亞 各國電力事業 比較研究 워크샵을 서울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알제리아에서 열린 世界動力會議執行委員會(IEC)에서 朴正基社長님의 誘致提議를 滿場一致로 채택, 87年 IEC大會를 서울에 유치하는데 成功한 것도 매놓을 수 없는 큰 成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業務의 電算化와 事務自動化도 활발히 推進하여 與件을 조성하고 轉機를 마련한 뜻깊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本社 社屋에 IBM4341 G<sub>2</sub>를 추가로 도입 운영하고, 事業所에도 端末을 증설, 이제는 전사원이 電算化에 익숙할 수 있는 與件이 성숙되었으며, 事務自動化의 일환으로 팩시밀 網을 확대하였고, 워드 프로세서를 50대 도입, 시험운영함으로써 事務自動化의 元年을 비로소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電力設備의 效率의 補修를 위하여 韓電이 100% 出資, 韓國電力補修株式會社를 再發足시킴으로써 우리公社は 8개의 거대한 방계조직을 거느리는 에너지그룹의 리더로서 責任이 加重된 가운데 면모를 새롭게 다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體育振興의 일익을 맡고 있는 우리 公社は 작년엔 蹴球꿈나무를 育成하기 위해 幼少年 蹴球團 育成이라는 의욕적인 事業을 착수, 全國 46개 蹴球團을 선발하여, 지난 10月 忠州에서 9개 道代表팀이 모여 첫 全國大會를 成功으로 치루었던 일도 주요 발자취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각 분야에 걸쳐 눈에 띈 成果는 社長經營方針인 人材養成을 구현하고 믿음과 사랑받는 韓電建設을 위한 우리 職員들의 슬기와 즐기찬 決意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믿으며, 여기에 더해 평소 여러분의 自發的인 協助와 理解가 밑거름이 되었다는 事實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협조와 勞苦에 衷心으로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作末과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祈願합니다.

\*

